

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15일 목요일 음 11월 27일 (4월)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주	10%
30%	성산	10%
60%	고산	20%
60%	서귀포	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 대체로 맑음 6/17°C
모레 ☀ 구름많음 6/16°C

대체로 흐림

제주는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13°C, 낮 최고기온은 16~18°C로 예상된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나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해뜰 07:38	달뜰 04:46
해진 17:49	달진 14:24
물때	만조 09:31

자외선지수	산불위험지수
낮음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이란 “미국, 군사개입 구실 찾고 있어”

트럼프 문제 삼은 서한 발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반정부 시위대를 독려하고 나선 가운데 이란이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행보를 비난했다.

주(駐)유엔 이란대표부는 13일 (현지시간) 엑스(X·엣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미국의 대(對)이란 정책과 환상은 정권 교체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제재와 위협, 계획된 소요, 혼란 등을 군사 개입 구실을 만들기 위한 범죄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란 국민들은 자기 땅을 지킬 것이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솔책은) 또다시 실패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대표부는 이와 함께 안토니 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야부 카르 다히르 오스만 유엔 안전보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이사회(안보리) 의장 앞으로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설에 올린 “계속 시위하라. 여러분의 (정부)기관들을 점령하라”는 글을 그대로 인용하며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란 지도부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할 경우 개입할 수 있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해왔다.

연합뉴스

한국일보

제주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 한 육 편집국장 고 대로

④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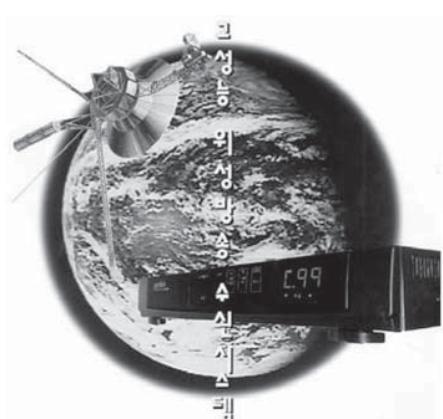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기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정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지 삼도 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목요담론



이호진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

제주는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13°C, 낮 최고기온은 16~18°C로 예상된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나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2025년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주

새해 내 집 마련을 위해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식·채권 매각 대금,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그리고 부동산 처분대금 등만 기재하면 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가상화폐로 번 돈으로 집을 살 경우 얼마를 조달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거래내역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증여나 상속을 통해 주택구입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함께 증여세나 상속세 납부 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차입금의 경우 기준에는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외의 대출에 대해서는 ‘그 밖의 대출’이라고 기재했지만, 사업자 대출을 기업운영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비규제지역 내 주택이라도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금의 마련 경로를 작성해 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한편 올해에도 주택담보대출 받

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1월

부터 주택담보대출 위험기증치가 기준 15%에서 20%로 상향돼 은행권의 대출취급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기서 위험기증치가 20%로 높아진다는 것은 1조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 은행이 적립해야 하는 자기자본이 150억원에서 200억 원으로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즉, 은행의 자기자본 부담이 늘어나면 대출 취급 규모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

만약 예전에 청약 예금이나 부금에 기입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2025년 9월 말까지 전환 시한이 올해 9월 30일까지로 연장됐기 때문이다.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민영 주택만, 청약저축은 국민(공공)주택만 청약 가능하다. 그러나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세제 등 다

양한 혜택에 더해 민영·국민(공공) 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무주택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규모가 확대된다. 2025년까지는 가구 단위의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을 대상으로 연간 환산 월세에 대해 10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주거지가 서로 다른 무주택 근로자 부부라면 각각의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기준에는 세대주 1인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각각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로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는 서로 다른 시·군·구여야 하고, 무주택자 요건도 종족해야 하며, 공제한도는 부부합산 연 1000만 원까지 인정된다.

열린마당

무심코 날린 드론, 큰 코 다친다



강상훈
제주경찰청 홍보계 경감

‘돌아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다. 겉보기엔 안전해 보여도 신중하게 확인하고 행동하라는 뜻처럼 드론 비행 역시 사전 확인과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경찰청 언론홍보를 담당하며 접하는 각종 안보 상황 언론보도 기사를 보면 드론으로 인한 위협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한다.

제주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306건의 안보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약 77%가 불법 드론 관련 사례다. 특히 제주공항과 항만, 군부대 등 국가중요시설 주변에서 미승인 드론 비행이 잇따르고 있다.

불법 드론 비행은 ‘항공안전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제주의 자연을 활용하거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드론을 띠우는 경우가 많지만, 자칫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제주시는 도심에 공항이 위치해 있어 공항 반경 9.3km 이내, 즉 제주시내 전역에서 드론 비행시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무조건 드론을 날리자는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불법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드론을 띠우려는 지역에서 비행 승인 여부와 비행 가능 구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포털의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활용하면 비행 계획 수립과 비행 가능 지역 검색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드론은 유용한 기술이지만 국가 안보 위협 등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함께 존재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경숙
제주시 교통행정과

제주시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면서 놀란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정신이다. 매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많은 분이 참여해 주시는데, 실제로 지난 12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315명의 시민이 신고해 주신 민원 대다수는 바로 ‘불법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단속 대상이 되는 ‘불법 자동차’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기준 위반’ 차량이다. 제동등, 후미등, 번호등 같은 각종 등화장치가 고장 나거나 파손된 경우, 혹은 후부반사지,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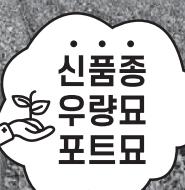
전판 불량 등이 해당한다.

둘째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를 위반한 ‘불법 튜닝(구조변경)’ 차량이다. 자동차의 구조(길이·너비·높이·총중량)나 장치(주행·조향장치 등)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우리 시에서 처리한 불법 자동차 건수는 안전기준 위반 2,291건, 불법 튜닝 223건 등 총 2,514건으로 전년 대비 약 31%나 증가했다. 업무 탓인지 나 역시 운전대를 잡으면 도로 위 앞차의 등화 장치가 제대로 들어오는지부터 살피는 직업병이 생겼다.

자동차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과도한 변형은 도로 위 나쁜 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는 출고 당시의 상태, 즉 ‘순정’ 그대로 운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도로 위 안전을 위해 자발적인 차량 점검과 준법 운행을 당부드린다.

강정종묘 종남농장



제18-서귀포-2019-20-03

- 국립종자원에 생산, 판매신고가 된 믿을 수 있는 공식업체
- 국내육성 신品种 통상실시 계약완료
- 다양한 년수 포트묘 보유중

등록품종

한리봉, 천혜향, 황금향, 가리향, 레드향, 설향, 맷나봉, 레드스타, 하귤, 유라조생, 레몬.

신품종

달코미, 우리향, 미래향, 설향, 맷나봉, 레드스타, 하귤, 유라조생, 원터프린스.

원장 신동구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756-2833

주문전화
서귀포시 이어도로 530
(사무실) 010.3696.1614